

高麗時代 天台宗 所依 章疏와 『新編諸宗教藏總錄』*

A Commentaries(章疏) According to Cheontaejong(天台宗) in the Middle of Koryo Dynasty and the *Shinpyeonjeonggyojangchongrok*

朴 鎔 辰 (Park, Yong-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法華 및 天台 章疏 |
| 2.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所依 章疏 | 4. 맺음말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는 義天의 天台宗 開創과 그 당시에 활용되었을 所依 章疏를 『대각국사문집』, 碑文, 『교장총록』 등 제 사료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천은 숙종 2년(1097) 5월에는 홍왕사 주지를 겸하면서 국청사가 완공되자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숙종 5년(1100)에는 국청사에서 천태 교학을 강하고, 숙종 6년(1101) 2월에는 천태종 승과 대선을 실시해서 40명을 선발하는 등 천태종세를 진작하였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함께 활용된 소의 경전과 장소를 살펴보면, 천태종의 대표적 소의경전은 『妙法蓮華經』이지만, 『열반경』, 『반야경』 등 특정의 경전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천태종 諸 祖師가 찬술한 章疏가 활용되었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 초기 天台敎學은 천태사상의 기본 장소인 『法華玄義』, 『天台十不二門』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의천의 문집 등에서 언급한 경논 및 장소관과 관련하여 『교장총록』의 배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천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疏鈔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가능한데, 『교장총록』의 법화 및 천태 장소의 배열은 疏鈔記科의 위계적 분류 - 著者 시대순 배열 - 신라·고려·遼의 章疏 별도 배열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천태종의 교관병수와 관련하여 『법화경』을 비롯한 諸經 章疏類를 敎門, 論部의 <諸宗撰述>에 수록된 止觀類 章疏를 觀門으로 유별할 수 있다.

끝으로 『교장총록』에 수록된 천태종 장소에 대하여 천태종의 개조인 지의로부터 宋初에 이르는 법계를 정리하고, 그들의 저술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천태종 장소가 고려 의천의 천태종 개창 당시 천태종의 종파성립의 所依 章疏의 근간이 되었다.

要語: 의천, 대각국사, 법화 및 천태장소, 신편제종교장총록

* 본 논문은 <2014년 제3차년도 ‘高麗 諸宗教藏 調査’ 학술보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講師(pyj04667@hanmail.net)

접수일: 2015년 5월 26일 최초심사일: 2015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25일

<ABSTRACT>

Uicheon studied the ideology of Vijñaptimātratā under the Buddhist monk Usang at This paper analyzed the commentaries which are utilized the founding of Cheontaejong(天台宗) by Uicheon(義天). Its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Uicheon founded the Cheontaejong in 1097(Suk-Jong 2). He lectured the Cheontae Doctrine(天台教學) at the Kukcheongsa(國淸寺) in 1100. In addition, Uicheon in February 1101 selected 40 monks in the monk-test of the Cheontaejong. Thereby, Cheontaejong evolved. Uicheon used 『*saddharma-pundarika-sutra*(法華經)』, 『*Mahāparinibbānatuttana*(涅槃經)』 etc as the basic scriptures of the Cheontaejong. In addition, it utilizes commentaries written by a monk of the Tendai sect. At that times, the Cheontae Doctrine of the Uicheon was focused on Fahua xuanyi(法華玄義), Tientai-Shibuermen (The Ten Aspects of Non-duality 天台十不二門).

The reception of commentary(章疏觀) by Uicheon appear well in 『*Daegakguksa-Munjip*(大覺國師文集)』. This paper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 through above standard. Uicheon understood the Buddhist Sūtra through the efficient use of commentaries(疏鈔). The array of commentaries in the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 was a unique standard which are So-cho-gi-kwa(疏鈔記科)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uthor periodization arrangement, separate placement of Shilla and Koryo, Liao(遼) commentaries.

In particular, Uicheon placed separately commentaries in relation to Cheontae Doctrine(天台教學). Uicheon divided into Gyomun(教門) and Gwanmun(觀門) for the commentaries in the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 A commentaries of Gyomun(教門) consists of the scriptures including 『*saddharma-pundarika-sutra*(法華經)』 in the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 Sautrāntika(經部)』, and that of Gwanmun(觀門) consists of the commentaries of Śamatha and Vipāśyanā(止觀) listed in the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 Treatises(論部)』.

Finally, this paper shows the lineage of the Tiendai monks of China, and listed the commentaries they wrote. The commentaries of the Tiendai sect became a standard when Uicheon founded the Cheontaejong.

Key words: Uicheon(義天), Daegakguksa-Munjip(大覺國師), Commentary(章疏), *Shinpyeonjonggyojojang-chongrok*(新編諸宗教藏總錄), heontaejong(天台宗)

1. 머리말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11-12세기 한문불교문화권의 국제적 교류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주목되었고 그의 화엄, 천태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 특히 의천의 천태종의 開創, 화엄사상, 敎藏의 간행 등에 있어 다수의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의천의 천태종 개창에 있어 佛敎思想이나 敎學의 기반이 되는 經典과 章疏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하였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교학에 대한 연구는 김상기와 조명기에 의해 시작되었다. 의천의 天台思想에 대하여 관련 資料를 集錄하고 함께 살펴보고 있으나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²⁾ 이 시기 의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天台宗의 開創이나 敎藏의 刊行 문제에 집중되었다. 본격적인 의천사상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국사학자로서는 金杜珍 등이 송과의 불교 교류, 송의 화엄·천태교학과의 관련성, 고려불교 사상사 내에서의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 등을 간략히 언급하였다.³⁾ 이 또한 천태종 개창의 기반이 되는 章疏 분석은 아니었다. 불교학자인 李永子는 의천의 天台會通思想·天台宗開創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교장총록」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장소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법화경 장소 60부 229권, 천태 관계 장소 39부 146권이라고 하여, 천태종 조사별 저술이나 사자상승에 따른 학계별 분석에 이르지 못하였다. 철학계의 이병욱 등은 의천의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에 주목하여 개별적 章疏를 哲學的으로 분석하였다.⁴⁾ 이후 의천의 천태사상과 송대 천태 山家山外派 사상과의 교류나 관련성

1) 최근의 의천 관련 연구 현황은 다음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박용진, 「의천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혜안, 2011).

2) 金庠基, “大覺國師義天에 對하여,” 「國史上的 諸問題」(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9). ; 「東方史論叢」 개정판(서울: 서울대출판부, 1984). ; 趙明基, 「高麗 大覺國師와 天台思想」(서울: 東國文化社, 1964).

3)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연구」(서울: 일조각, 2006). ; 金哲俊, “高麗初의 天台學 研究 - 諱觀과 義通 -,” 「東西文化」, 2 (대구: 啓明大 東西文化研究所, 1968). ; 許興植, “高麗前期 佛敎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 「韓國學報」, 제11호(1978. 2).

에 대해서 주목하였다.⁵⁾ 송대 천태교학과 장소에 대하여 林鳴宇, 최병헌이 「교장총록」과 「佛祖統紀」의 「山家教典志」의 章疏를 간략히 분류 정리한 바 있다.⁶⁾ 이 또한 총체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서지학에서는 고려시대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당대에 간행되어 유통된 법화 및 천태 장소를 정리한 바 있다.⁷⁾

한편 「교장총록」의 분류체계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에서, 분류 체계가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견해와 달리 의천의 敎學에 의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편찬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⁸⁾ 이후 연구는 위의 분류기준을 수용하여 종파별 장소 분류나 綱目的 분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으로 이어졌지만,⁹⁾ 천태종의 소의 章疏를 염두에 둔 분석은 아니었다.

본고는 이상의 제설에 따라 義天의 天台宗 開創과 활용된 所依 章疏를 「교장총록」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코자 한다. 宗派의 개창은 교단, 교의, 의례의 기초 위에 성립하므로 그 중심에 소의 교전이 있다. 고려시대 의천의 천태종 개창 당시 所依 經疏의 분석을 통하여, 고려 천태종의 전개에 대해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4) 박종홍, 「한국사상사」 개정판 (서울: 서문당, 1999). ; 吉熙星, “高麗 佛教의 創造的 綜合: 義天과 知訥,” 「韓國思想史大系」 3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병욱, “義天의 天台思想 受容의 두 단계,” 「普照思想」 제11집(1998. 2).
 - 5) 高橋亨, “大覺國師義天の高麗佛教に對する經緯について,” 「朝鮮學報」 제10호(日本: 奈良, 1956. 11). ; 崔柄憲, “義天和 宋의 天台宗,”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1992)에서 「教藏總錄」에 수록된 송대 천태교학 관련 저술을 검토하였다.
 - 6) 林鳴宇, 「宋代天台敎學の研究-金光明經の研究史を中心として」, (일본: 山喜房佛書林, 2003). ; 崔柄憲,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創立과 宋의 天台宗,” 「인문논총」 제47집(1999. 6).
 - 7) 南冠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8) 金聖洙,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제10호(1983. 6). ; 千惠鳳,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法華經經板,” 「東方學誌」 제54·55·56합(1987). ; 鄭駟驥, 「高麗佛典目錄研究」, (서울: 論叢刊行委員會, 1990).
 - 9) 서수경,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의 佛敎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 朴鎔辰,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中央史論」 제22호(2005. 12).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고찰,” 「서지학보」 제31호(2007. 12). ; 임혜경,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찬과 그 의의,” 「韓國史論」 제58집(2012).

2.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所依 章疏

2.1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일찍이 시도되어, 화엄종을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하려 하였지만 좌절되었고, 1094년 2월에는 흥원사로 옮겨 주지가 되었다가 곧 해인사로 이거하였다. 인주이씨인 이자의와 흥왕사 지소의 세력에 밀려 해인사에 퇴거하였던 의천은 숙종의 즉위 이후 숙종 1년(1096) 개경의 흥왕사로 돌아와 주지가 되어 강학하였다. 이듬해 숙종 2년(1097) 5월에는 흥왕사 주지를 겸하면서 국청사가 완공되자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 시기 의천의 불교계에서의 역할은 화엄종과 천태종의 병립을 통한 불교계 재편이었다.¹⁰⁾

의천의 천태종 개창을 살펴보면 고려초에 諦觀과 智宗이 天台思想 경향을 가졌지만 天台宗의 開立이나 師承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諦觀은 吳越로 들어가 「天台四教儀」를 저술하고 教學活動을 전개하였지만 귀국치 못하였다. 智宗 역시 천태사상을 접하였지만 10여 년 동안 귀국치 못하였고, 귀국 후에는 法眼宗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의천 당시에 諦觀·義通·智宗 등의 천태사상이 전승되어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宗派로 성립되지 않았다.

천태종의 개창은 불교계의 재편과 의천의 천태종 문도 형성 등과 관련이 있다.¹¹⁾ 천태종의 인적 구성은 禪宗 승려를 모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圓應國師學一의 비문에는 그 재편에 따른 禪宗계의 위기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元祐元年 丙寅回 尊崇智者 別立宗家”라고 하여 의천이 1086년 송에서 돌아와 천태종을 개창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귀국 후 의천은 宣宗의 佛教政策에 짝하

10)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서울: 해안, 2011)에서 천태종 개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11) 천태종 개창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① 숙종 2년(1097) 국청사 낙성: 김두진, 김상영, 김상현, 이봉춘, 최병현, 홍정식, 高橋亨. ② 숙종 6년(1101) 천태종선 시행: 이영자, 忽湑谷快天. ③ 의천 사후설(1101년 이후): 허홍식: 입적과 함께 추종 선승들이 천태종을 형성.

여 홍왕사를 主掌하면서 華嚴敎學을 闡揚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圓宗文類」와 「新編諸宗敎藏總錄」을 편찬하는 한편 「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를 올리고 散逸된 諸宗 敎藏을 雕印하였다.¹²⁾ 따라서 의천이 귀국 후 바로 천태종을 개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천은 일찍이 天台敎學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며 천태종 개창 시도는 선종대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의천은 귀국 후 화엄종 위주의 교학을 폄하했지만 천태교학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찬하면서 화엄과 天台章疏를 다수 수록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¹³⁾

의천이 귀국 후 天台敎觀을 선양하는 모습은 국청사 시창과 天台宗禮懺法의 設行으로 나타났다. 선종 6년(1089)에는 국청사의 工役을 시작하고,¹⁴⁾ 선종 9년(1092)에는 의천의 모후인 仁睿太后가 天台宗禮懺法을 見佛寺에서 設行하는 등 천태종 개창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의천은 선종 11년(1094) 5월 선종의 사망을 전후로 하여 해인사에 은거하는데, 이는 華嚴宗을 위주로 天台敎觀을 선양하려는 努力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¹⁵⁾ 의천은 해인사 퇴거 2년여 만인 숙종 1년(1096) 개경의 홍왕사로 다시 돌아와 주지가 되어 講學하였다. 숙종 2년(1097) 5월에는 국청사가 완공되었고 홍왕사 및 국청사 住持를 겸하면서 天台敎觀을 강의하였다.¹⁶⁾ 이러한 모습은 의천의 천태종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교단을 구성하고 敎學面·儀式面·信仰面에서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의천은 숙종 5년(1100)에 국청사에서 천태 교학을 강하고, 숙종 6년(1101) 2월

12) 의천, “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 『대각국사문집』 권15, 『한국불교전서』 권4, 553.

13) 박용진, “의천의 新編諸宗敎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중앙사론』 22(2005. 12), 1-30.

14) 『高麗史』 권10, 선종 9년 6월.

15) 박용진(2011), 74-87.

16)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579.

17) 宗派의 성립은 특정 사상이 敎學面·儀式面·信仰面에서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 즉 사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蔡尙植, “고려시대 불교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 제5권 (서울: 한길사, 1993), 3-7). 한편 종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적·사상적·현실적 경제기반의 3요소를 제시하였다(허홍식, 『고려 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6), 277).

에는 천태종 승과 대선을 실시해서 40명을 선발하는 등 천태종세를 진작하였다.

2.2 天台宗 開創期 所依 教典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함께 활용된 소의 경전과 장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태종의 대표적 소의경전은 「妙法蓮華經」이지만, 「열반경」, 「반야경」 등 특성의 경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천태종 諸 祖師가 찬술한 章疏가 활용되었다. 고려 천태종 개창시 활용된 경전과 장소를 살펴 고려의 천태종 개창과 교학의 전개를 계기적으로 이해코자 한다. 우선 의천의 <선봉사비>에는 천태종의 기본전적과 교의를 알려주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일월등명불이 세상에 출현하여 4제 12인연 6바라밀을 설하시었다. 부처가 사리불에 고하기를 ‘여래는 단지 일불승만을 쓰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 설법할 때 다른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라고 하였다. (중략) 그 관법(觀)이 이미 「영락경」에 공·가명 및 중도 제일의체로 갖추어졌으며, 보처대사가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계승하였다. 여래가 입멸한 후 5백여 년이 되자 이단이 함께 일어나므로 용수보살이 「지도론」을 지어 중도를 발명하였다. 그러므로 형계 담연이 말하기를 “하물며 다시 三觀이 本宗의 瓔珞이며, 일가의 教門은 멀리 <불경>으로부터 받았으니, 「법화경」을 宗骨로 삼고 「智度論」을 指南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용수로부터 형계담연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9조를 거쳐, 그 가르침이 중국에 크게 유행하였다.¹⁸⁾

천태종의 교학은 一乘義, 空假中道の 三觀法을 기본으로 하며, 그 전거가 「妙法蓮華經」과 「영락경」, 용수의 「智度論」 등이 소의 경전이 된다. 더 나아가 천태종의 교문은 「妙法蓮華經」을 宗骨로 삼고 「智度論」을 指南으로 하는데, 이는 담연의 「止觀義例」의 내용을 節要한 것이다.¹⁹⁾ 본래 천태종은 지의의 「법화현의」,

18) 林存, “僊鳳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332.

“法華經云 … 會之圓妙一法 其觀已備於纓絡 空假名及中道第一義諦 補處大士 金口親承 荊谿云 況復三觀本宗纓絡 一家教門遠稟佛經 以法華爲宗骨 以智論爲指南.”

19) 「止觀義例」, 「大正藏」 권46.

“況復三觀本宗纓絡 補處大士金口親承 故知一家教門遠稟佛經 復與大士宛如符契 況所用義旨以法華爲宗骨 以智論爲指南 以大經爲扶疏 以大品爲觀法 引諸經以增信 引諸論

「법화문구」, 「마하지관」을 근본 전적으로 하여 <天台三大部>라 하며, 기타 「觀音玄義」, 「觀音義疏」, 「金光明玄義」, 「金光明文句」, 「觀經疏」의 5小部 등이 활용된다. 위의 담연은 「止觀義例」에서 “천태종은 법화를 종골로 하고, 대지도론을 지남으로 하며, 대품반야를 관법으로 하고 열반경을 부소로 삼으니 제경을 해석하여 믿음을 더하고, 제론을 해석하여 조성하니 一心을 經으로 하고 諸法을 緯로 하여 部帙을 이루니 다른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즉 경전으로는 「妙法蓮華經」, 「智度論」, 「大品般若經」, 「열반경」 등이 근본이 되는데, 이러한 경전은 의천 당대에 초조대장경 등에 入藏되어 유통되었다.

한편 경전의 주석서인 章疏는 「天台三大部」를 포함하여 다수 전래되었으며,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法華經」 장소는 61종 236권, 「大涅槃經」 장소는 30종 207권, 천태 관련 장소가 41종 등이다.²⁰⁾ 의천의 「교장총록」은 內題에 「海東有本現行錄」이라 되어있어, 수록된 章疏는 간사본의 형태로 고려에 모두 전존되어 있었다.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장소를 간행하였는데, 원간본의 翻刻·重刻·後刻本으로 「妙法蓮華經讚述」, 「淨名經集解關中疏」, 「大般涅槃經疏」,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贊科文」, 「法華玄論」, 「大般涅槃經義記圓旨鈔」, 「金光明經文句疏」, 「法華文句記」, 「金剛鐔顯性錄」 등이 송광사에 현전한다. 또한 廣教院版으로 「法華經玄贊會古通今新抄」,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등이 천태 장소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1102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천태종의 敎典으로 활용되었을 법하다. 상세한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서술한다.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는 송나라 불교계와 천태 장소의 교류 자료가 다수 수록되어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의천과 송승 淨源이 교류한 천태 관련 장소는 「新主法華經」, 「箋注仁王護國般若經」, 「天親論」, 智者와 慈恩의 「法華經」註釋, 僧叡法師 「注本」 7권 등과 함께 신라의 元曉, 景興, 玄一, 信雄, 大賢 등의 章疏가 있었다.²¹⁾

以助成 觀心爲經 諸法爲緯 織成部帙 不與他同.”

20) 의천, 「新編諸宗教藏總錄」.

21) 의천, 「上淨源法師書」, 「大覺國師文集」 권10, 「韓國佛教全書」 권4, 543.

<표 1> 「대각국사문집」 수록 法華·天台 관련서

交流人物	交流 章疏	典據
淨源	見行教乘目錄, 祖師圖 法華經疏(僧叡法師疏) 判教辨祖儀圖, 清志書, 錦堂記	『의집』 권2, 書제2 (『한불전』 4-569, 4-570)
義天 → 淨源	제2 箋注仁王護國般若經	『내집』 권10, 書 (『한불전』 4-543) 上淨源法師書 4수
	書3수 제1 新主法華經, 金衡鈔 등	『내집』 권11 書 (『한불전』 4-545) 上淨源法師書 3수
有誠	(2) 章疏目錄1권	『의집』 권3 書제1 (『한불전』 4-571)
淨源	(2) 教乘數目 天親論, 智者, 慈恩‘法華經’註釋 僧叡法師注本 7권 吉藏 元曉 景興 玄一 信雄 大賢 등 (4) 제2 法華經注12권	『의집』 권3 書제1 (『한불전』 4-571)
辯眞	제2 注懺 1본, 教藏摠錄 2책, 天台教圖 2본, 白傘盖呪圖子 1본 集解法華文字 20책 上生疏刊定注經(慈恩) 제3 法懺文字 端侍, 法華文字 今錄 3책	『의집』 권5 書제2 (『한불전』 4-574)
從諫	永嘉集	『의집』 권7 書제4 (『한불전』 4-579)
義天 → 元炤	大無壽量經, 小彌陀經, 十六觀經	『내집』 권11 書 『答大宋元炤律師書』 (『한불전』 4-546)

특히 송 천태종승 辯眞과의 교류 가운데 수록된 천태장소는 「注懺」, 「天台教圖」, 「白傘盖呪圖子」, 「集解法華文字」, 法懺文字 등으로 장소류 외에 ‘法懺, 注懺’이라 하여 懺法類가 있어 주목된다.²²⁾ 계율종의 元炤와 교류에 보이는 장소는

『彌陀經』 관련 3종 경전이 보이는데, 이 또한 천태종의 소의 경전으로 활용된 것이다. 의천의 문집과 외집에 수록된 천태 장소류는 대부분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어, 당시 고려 국내와 송 불교계와의 교류 가운데 적극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불교계가 이러한 장소를 교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들은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함께 활용되었을 법하다.

의천은 1097년 5월 국청사 주지가 되어 天台敎學을 선양하였는데, 천태사상의 기본서인 妙玄, 즉 『法華玄義』를 국청사에서 강설하였다.²³⁾ 또한 방언으로 번역한 것이 『華嚴經』 3본 180권과 『南本涅槃經』 36권이며, 『妙玄』 10권 등이 있었다.²⁴⁾ 의천은 23세부터 『貞元新譯華嚴經疏』 10권을 강의하기 시작하여 46세가 되는 숙종 5년(1100)까지 강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涅槃經』에 대하여는 『南本涅槃經』 30권을 방언으로 번역하였고, 『법화경』에 대하여는 국청사에서 『天台妙玄』을 강의하고 『法花玄義』 10권을 번역하는 등 華嚴·涅槃·法華經 관련 3백여 권의 경전을 번역하였다.²⁵⁾

의천 문집 소개 강경 대상의 경전으로서 국청사를 신창하고 강경할 때에는 『天台止觀』, 『妙法蓮華經』을 강설하였다.²⁶⁾ 국청사를 신창하고 천태 관련 경전을 강경하는 것은 고려 천태종의 개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詩文은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고 어떠한 天台敎學을 중시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22) 의천, 『大覺國師外集』 권5, 『韓國佛教全書』 권4, 574.

23) 의천, “國淸寺開講辭,” 『대각국사문집』 권3, 『韓國佛教全書』 권4, 532.

24) 의천, “錦繡三百貫花詮,” 『대각국사문집』 권22, 『韓國佛教全書』 권4, 566.

25) 의천, “庚辰六月四日國淸寺講徹天台妙玄之後言志示徒,” 『대각국사문집』 권20, 『韓國佛教全書』 권4, 566.

“二紀孜孜務講宣(予自二十三歲始講貞元新譯花嚴經并疏共五十卷其年徹軸自後講演未嘗有廢) 錦繡三百貫花詮(所有講演諸部三百餘卷而花嚴三本共一百八十卷雖有古人相承之說吾并不用但依本疏翻譯方言其南本涅槃三十六卷等亦爾妙玄十卷等諸部古無傳授者不揆庸受輒譯方言亦有十餘部高僧傳云繡也者如錦綺但花有左右耳故云錦繡) 憔悴愧乏傳燈力(予有心勞之病近日漸增看讀經書每覺心痛學業荒廢) 祇合匡廬種社蓮(仁睿太后昔曾發願結社之事所有宋本名畫廬山十八賢真容落在院門末有安置堂閣) 予欲仗此勝緣修西方之業用薦冥遊云爾)”

26) 義天, “新創國淸寺啓講辭,” 『대각국사문집』 권3, 『韓國佛教全書』 권4, 530.

留題三角山息庵²⁷⁾

講徹香林訪息庵

(香林講天台十不二門)

崎嶇松逕撥煙嵐

當年龍井攀高論

見景思人恨不堪

香林에서 講徹하고 息庵을 찾으니

(香林에서 天台十不二門을 강하다)

울퉁불퉁 솔밭길 아지랑이 피네.

그때 龍井에서 고론을 펼쳤더니

경치 보고 사람들을 생각하니 情恨을 참을 수 없네.

의천은 三角山 향림사에서 「天台十不二門」을 강설하였다. 十不二門은 天台宗의 十種 不二法門으로 觀心의 大綱을 제시한 것이다. 湛然은 智顓의 「法華玄義」에서 說한 十妙에 의거하여, 實踐의 解釋을 부여하였다. 곧 「法華玄義」는 주로 天台의 교의를, 「摩訶止觀」은 주로 觀法의 실천을 서술하였지만, 「十不二門」은 「法華玄義」에 대해 실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²⁸⁾ 따라서 의천이 荊溪湛然의 十不二門을 강설한 점은 天台宗 淨土 山家派를 따르면서 특히 天台教觀 가운데 觀心門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천은 「法華玄義」를 講經하였을 뿐만 아니라 翻譯하였다. 다음이 이를 알려준다.

庚辰六月四日國淸寺講徹天台妙玄之後言志示徒

스물두 해 동안 부지런히 講經하여

華嚴 涅槃 法華玄義 등을 번역했네.

오랫동안 노심초사 法燈 전할 힘 없음이 부끄러우니

다만 18賢의 眞容 모실 法華 結社處를 생각하네.²⁹⁾

27) 의천, “留題三角山息庵,” 「대각국사의집」 권19, 「韓國佛教全書」 권4, 562. “予於元豐元祐之間 訪道江南 曾到餘(杭)龍井寺 與辨才大師淨公 終日攀高論 蓋天台宗 彼有訥庵與此 略同不覺思舊也”. 항주 용정사에서 辯才大師 元淨과 토론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天台종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28) 謙田茂雄 等, 「大藏經全解説大辭典」, (日本 東京: 雄山閣出版, 2001), 565.

29) 의천, “庚辰六月四日國淸寺講徹天台妙玄之後言志示徒,” 「대각국사문집」 권20, 「韓國佛教全書」 권4, 566.

“二紀孜孜講宣(予自二十三歲始講貞元新譯花嚴經并疏共五十卷其年徹軸自後講演未嘗有廢) 錦繡三百貫花詮(所有講演諸部三百餘卷而花嚴三本 共一百八十卷 雖有古人相承之說 吾并不用 但依本疏翻譯方言 其南本涅槃三十六卷等亦爾 妙玄十卷等諸部 古無傳授者 不揆膚受 輒譯方言 亦有十餘部高僧傳云 繡也者 如錦綺但有左右耳 故云錦繡) 憔悴愧乏傳燈力(予有心勞之病 近日漸增 看讀經書 每覺心痛 學業荒廢) 祇合匡廬種社蓮(仁睿太后 昔曾發愿 結社之事 所有宋本名畫廬山十八賢眞容 落在院門末有安置堂

의천은 숙종 5년(1100) 6월 4일 국청사에서 『天台妙玄』 즉 법화 3대부의 하나인 『法華玄義』를 강설하고 시를 지었다. 『法華玄義』는天台智顓가 講述하고,灌頂이 筆記한 것으로 宋 天聖 2년(1024)에 遵式의 奏請으로 入藏되었다.³⁰⁾ 이 책은 『妙法蓮華經』의 經의 제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울러 『法華經』의 깊은 義趣를 설명한 것이다.³¹⁾ 이 시기에 의천은 숙종의 후원으로 국청사를 낙성하고 천태종을 통한 불교계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그는 『法華玄義』를 강설하여 법화경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法華玄義』의 주석서인 『法華玄義釋籤』의 十妙를 해석하는 단에 10종의 不二門을 세워서 천태의 교관의 大綱을 서술한 『十不二門』을 통하여 천태교학을 강설하였다.³²⁾ 요약컨대, 의천은 천태종 개창과 관련하여 소의전적과 장소는 『법화경』, 『열반경』, 『지도론』, 『인왕경』, 『유마경』 등 다양하였고, 장소류는 『十不二門』, 『法華玄義』 등을 강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전기 간사본의 형태로 유통된 大安 5년(1089) 海印寺 重刻의 『天台四教儀』가 주목된다. 제관의 『天台四教儀』는 천태입문서로 기능하였지만, 고려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치 않다.³³⁾ 송대의 淨源은 “귀국의 제관상인이 『天台四教儀』를 저록하여 중국에 유전하여 천태 지자의 범손들이 행사의 준칙과 정확한 지도로 삼았습니다³⁴⁾”라고 하여, 의천과 정원이 제관의 『天台四教儀』에 대한 기본정보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른 시기의 『天台四教儀』는 1089년 해인사 重刻本이 유리판으로 남아있다.

閣 予欲仗此勝緣 修西方之業用 薦冥遊云爾).”

30) 志磐, 『佛祖統紀』 권10, 『大正藏』 권49, 208.

“師爲著金光明護國道爲靜上之 因奏天台教文乞入大藏 事未行而公薨 天聖元年(仁宗) 內臣楊懷古降香入山 敬師道德復爲奏之 明年始得旨入藏.”

31) 謙田茂雄 等(2001), 565.

32) 의천, “送悟禪師請老歸山,” 『대각국사문집』 권20, 『韓國佛教全書』 권4, 566.

“佛隴高文墜地久 祖師遺寄待君行 功成信不居京輦 好向林泉學靜明(靜明止觀之謂也).”

33) 남권희(2007), 666-667.

34) 淨源, 『대각국사외집』 권2, 『韓國佛教全書』 권4, 569-570.

“大宋國 兩浙傳賢首祖教 老僧 淨源書 白高麗國僧統法子.”

3.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法華 및 天台 章疏

3.1 법화 및 천태장소 분류체계

고려시대의 천태종 개창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에 의해서 비롯한다. 의천 이전에도 「법화경」과 관련된 경전과 장소 그리고 천태 찬술의 다양한 장소들이 유통되었지만 천태종이 종파로서 개창되어 활용된 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의천이 편찬한 「교장총록」은 1090년 고려 당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불교계의 法華 및 天台 章疏의 현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 목록이다.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法華經」 유관 장소는 61종 236권, 천태종 관련 장소가 41종 149권 등 모두 102종 385권으로 大藏經 및 目錄을 비롯 전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장총록」 소재 「법화경」 장소³⁵⁾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傳存 現況	비고
1	法華經	注七卷(本文題下不見人名 目錄云僧叡述待勅)	僧叡述	7	大谷大	
2	法華經	文句十卷	智者說	10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3	法華經	文句科四卷	湛然述	4	金澤文庫	
4	法華經	文句記十卷	湛然述	10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5	法華經	判七卷(或十卷)	亡名	7		
6	法華經	疏十二卷	吉藏述	12	大正/卍續/	
7	法華經	贊述十卷	慧淨述	10	松廣寺 卷1-2, 5-6	

35) 전존현황은 大藏經 및 目錄 위주이며, <<http://www.muni-buddha.com.tw/buddhism/>> 佛教藏經目錄數位資料庫 검색 결과이다. 이 大藏經 목록에 장소명이 나오지 않지만 현전하는 경우 대표적인 소장처만 제시하였다.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傳存 現況	비고
8	法華經	玄贊十卷	窺基述	10	趙城金/宋藏/大正/中華/卍續/	
9	法華經	會古通今鈔十卷	詮明述	10	松廣寺 卷1-2	
10	法華經	科四卷大科一卷	詮明述	5		
11	法華經	義決一卷	慧沼述	1	大正/卍續/	
12	法華經	摭要四卷	契明述	4		
13	法華經	綱要略釋一卷	智因述	1		
14	法華經	疏七卷	玄範述	7		
15	法華經	疏八卷	玄一述	8		
16	法華經	疏十六卷(或八卷)	憬興述	16	逸文	
17	法華經	古跡記四卷	太賢述	4		
18	法華經	疏三卷	道倫述	3		
19	法華經	玄論十卷	吉藏述	10	大正/卍續/	
20	法華經	玄義十卷	智者說	10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1	法華經	科六卷	湛然述	6	崇寧/中華/卍續/	
22	法華經	釋籤十卷	湛然述	10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3	法華經	本跡十妙不二門一卷	湛然述	1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4	法華經	十不二門指要鈔二卷科一卷	智禮述	3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5	法華經	十不二門文心解一卷科一卷	仁岳述	2	卍續/	
26	法華經	十不二門總別指歸一卷	梵臻述	1		
27	法華經	注法華本跡不二門一卷	宗昱述	1	高山寺	
28	法華經	十不二門顯妙一卷	處謙述	1	卍續/	
29	法華經	讀十不二門新注一卷	慈梵述	1		
30	法華經	論三千書一卷	仁岳述	1		
31	法華經	答三千書一卷	尙賢述	1		
32	法華經	議方便品題一卷	從諫述	1		
33	法華經	扶宗權實辨正章一卷	彥欽述	1		
34	法華經	答海月大師絳惟十問一卷	彥欽述	1		

高麗時代 天台宗 所依 章疏와 「新編諸宗教藏總錄」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傳存 現況	비고
35	法華經	三昧儀一卷	智者述	1	趙城金/至元錄/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己正/大正/佛教大/中華/	
36	法華經	釋一卷	曇延述	1		
37	法華經	遊意一卷	吉藏述	1	大正/己續/	
38	法華經	要旨記三卷(或一卷) (但云開公述不見上字)	開公述	3		
39	法華經	大意一卷	明曠述	1		
40	法華經	宗要一卷	元曉述	1	大正/	
41	法華經	綱目一卷	義寂述	1		
42	法華經	料簡一卷	順憬述	1		
43	法華經	料簡一卷	惠雲述	1		
44	法華經	方便品料簡一卷	元曉述	1		
45	法華經	觀音品義疏二卷	智者說	2	趙城金/大正/	
46	法華經	觀音品玄義二卷	智者說	2	趙城金/至元錄/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己正/大正/佛教大/中華/	
47	法華經	義疏紀二卷科一卷	智禮述	3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己正/大正/佛教大/中華/	
48	法華經	普門品別行疏一卷	窺基述	1		
49	法華經	三玄圖讚二卷	思孝述	2		
50	法華經	圓贊科一卷	思孝述	1	松廣寺	
51	法華經	圓贊演義鈔四卷	志實述	4		
52	法華經	注七卷科一卷	呂民述	8		
53	法華經	疏三卷	延秀述	3		
54	法華經	傳十卷	慧詳述	10	大正/東大寺	
55	法華經	禮讚一卷	亡名	1		
56	法華經	智者大師傳一卷	顏真卿述	1		
57	法華經	別傳一卷	灌頂述	1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己正/大正/佛教大/中華/	
58	法華經	智者碑文一卷	梁肅述	1		
59	法華經	荊溪碑文一卷	梁肅述	1		
60	法華經	大乘基法師碑文一卷	李義(亦他人述)	1		
61	無量義經	無量義經疏二卷	智圓述	2		

<표 3> 「교장총록」論部の天台宗 章疏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大藏經및目錄현황	비고
1	諸法無諍門	諸法無諍門二卷	慧思述	2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	摩訶止觀	摩訶止觀十卷	天台述	10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3	摩訶止觀	科六卷	湛然述	6	崇寧/毘盧/中華/卍續/	
4	摩訶止觀	弘決十五卷(或十一卷或三十卷開合而已)	湛然述	15	崇寧/毘盧/趙城金/資福/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5	摩訶止觀	搜要記十卷	湛然述	10	卍續/	
6	摩訶止觀	刪定止觀六卷	梁肅述	6	卍續/	
7	摩訶止觀	止觀義例一卷	湛然述	1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	
8	摩訶止觀	止觀大意一卷	湛然述	1	趙城金/至元錄/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9	諸宗止觀	諸宗止觀三卷	道弼述	3		
10	諸宗止觀	科一卷	道弼述	1		
11	小止觀	小止觀一卷	天台說	1	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2	觀心論	觀心論一卷	天台說	1	趙城金/宋藏/至元錄/縮刻/大正/佛教大/中華/卍續/	
13	觀心論	疏三卷	灌頂述	3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4	禪波羅蜜	禪波羅蜜十卷	天台述	10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5	禪門口決	禪門口決一卷	天台述	1	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6	六妙門禪法	六妙門禪法一卷	天台述	1	趙城金/至元錄/縮刻/大正/佛教大/中華/卍續/	

高麗時代 天台宗 所依 章疏와 「新編諸宗教藏總錄」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大藏經目録현황	비고
17	方等行法	方等行法一卷	天台述	1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8	覺義三昧	覺義三昧一卷	天台述	1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19	四念處	四念處四卷	天台述	4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0	般若玄論	般若玄論一卷	天台述	1		
21	四教義	四教義四卷(或有十二卷本開合而已)	天台述	4	趙城金/至元錄/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卍續/	
22	略明開嚵初學坐禪止觀要門	略明開嚵初學坐禪止觀要門三卷(或一卷)	天台述	3	大正	
23	圓教六卽	圓教六卽一卷	天台述	1	卍續(行滿撰)	
24	八教大意	八教大意一卷	灌頂述	1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5	國清百錄	國清百錄五卷	灌頂述	5	趙城金/資福/至元錄/永樂南/永樂北/嘉興/縮刻/卍正/大正/佛教大/中華/	
26	四教儀	四教儀一卷	諦觀述	1	洪武南/永樂南/永樂北/嘉興/乾隆/縮刻/卍正/大正/中華/	
27	四教儀	科一卷	仁岳述	1		
28	四教儀	科一卷	從義述	1	高麗大	
29	四教儀	集解三卷	從義述	3	卍續/高麗大	
30	四教儀	講義三卷	從陳述	3		
31	四教儀	問答一卷	亡名	1		
32	四教儀	地位集解一卷	亡名	1		
33	別理隨緣二十問	別理隨緣二十問一卷(融會章附)智禮述	智禮述	1		
34	指濫	指濫一卷	繼齊述	1		
35	義學雜編	義學雜編六卷	仁岳述	6		
36	經體章	經體章一卷	尙賢述	1		
37	圓事理該	圓事理該一卷科一卷	元淨述	2	高山寺	

連番	經名	章疏名	撰者	卷	大藏經및目錄현황	비고
38	圓教解行集要	圓教解行集要一卷	惠才述	1		
39	天台法數	天台法數十卷	智親編	10	金澤文庫	
40	天台文類	天台文類十卷	如吉編	10	金澤文庫	
41	天台文類	天台文類類集口義十三卷	繼忠錄	13	金澤文庫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은 『海東有本現行錄』이라는 서명으로 보면 수록된 장소는 간사본의 형태로 고려에 모두 전존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위의 표의 자료에 대하여 저자, 찬술시기, 목록 배열 기준 및 체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장총록』은 경·율·론의 3門 아래 경전명으로科目을 나눈 후 다시 章疏名으로 條目을 분류하는 科條의 형식을 취하였다. 장소의 분류는 근사한 소주제 즉 제목순으로 인접시키고, 이어지는 후반부에 禮讚, 懺儀, 碑文, 行狀 등을 배치하는 분류 방식으로, 각 경전과의 상관성 및 교학연구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³⁶⁾ 또한 장소의 배열에 있어서는 장소가 가진 포괄성과 협의성에 따라 하향적으로 배치한 경향성을 가진다.³⁷⁾ 의천의 章疏觀을 살펴보면, 經과 論에 대하여는 科門으로 분류하여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어 경·율·론의 정문을 익힌 뒤 疏鈔를 통하여 대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의 증득은 <經 - 疏鈔 - 要約>의 순서로 학습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경론은 크게 科門으로 분류하여 정문을 완미한 뒤 소초로 경론의 대지를 터득하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이러한 의천의 章疏觀을 따라 『법화경』에 대한 장소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표 2> 『교장총록』에 수록된 법화·천태 章疏 분류에 따르면 『법화경』 章疏가 61부 236권으로 『화엄경』 장소에 이어 다수 入錄되었다. 이는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찬할 때 화엄종과 천태종의 입장에서 편찬한 것을 반영한다.³⁸⁾

36)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124-125.

37)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116-117.

38) 『新編諸宗教藏總錄』 序文에 “海東傳華嚴大教義天 敍”라고 하였으며 本文 앞에 “高麗義天錄”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화엄종 승려의 입장에서 編錄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또한 입송구법시 화엄과 천대종 승려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관련 장소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장소의 수록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教門의 장소, 品章, 예찬·전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소의 배열은 일정한 기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표 2> 장소목록의 연번 1번 승예의 「법화경주」에서 61번까지는 기본적으로 教門에 해당하는 것으로, <注, 疏, 抄, 科, 記> 등의 순서로 배치하여, 「법화경」에 대한 대지를 이해하는 방편의 位階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2번에서 4번은 「妙法蓮華經文句」와 관련된 장소군에 해당하며, <문구 - 과 - 기>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결국 <注, 疏, 抄, 科, 記>의 위계에 더하여 찬자의 활동시대순으로 소주제 類別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가 앞선 注, 疏를 우선 배치하면서도 「법화경」의 이해에 필요한 중요도에 따라 장소를 군별 수록하였다. 승예의 「법화경주」를 필두로, 「법화문구」, 「법화의소」, 「법화찬술」, 「법화현찬」, 「법화현의」, 「십불이문」, 「법화삼매참의」, 「법화중요」 및 강목류(36-43), 방편품 및 관음보문품(44-51), 법화경 예찬 및 전기류를 수록하였다.

한편 <표 3>의 天台宗 章疏는, <표 2>의 법화경 장소목록의 教門에 대하여 觀門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⁹⁾ 혜사의 「제법무쟁문」을 필두로 「摩訶止觀」 등 지관류, 관심론 등을 수록하였다. 결국 교상문과 관행문에 대해 교관결수의 입장인 의천은 「법화경」 부분에서 관문을 배치할 수 없었던 것을, 「교장총록」 권3의 후반부에 <諸宗撰述>과 관련된 장소를 入藏한 셈이다.

둘째 기준은 찬자 시대별 배열이다. 그 순서는 僧寂 - 吉藏 - 智者 등 수나라에서 당나라의 시대별 저자 순서로 수록하였다. 즉 저자의 활동 시대를 기준으로 정리한 셈이다.

의천은 1097년 천대종을 개창하였다.

39) 임혜경,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1-65에서 천대삼대부와 천대5소부의 경전을 우선 배치하였고, 이는 법화경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止觀에 해당하는 「마하지관」은 법화경의 직접 주석이 아니므로 별도의 논부에 배열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기준은 고려 이전 신라 조사나 중국 이외의 국가인 遼의 승려 저술을 구분하여 배치한 것이다. <표 2>의 14-18번, 39-44번, <표 3>의 「천태사교의」는 신라와 고려의 장소에 해당한다. 이들 장소는 중국의 승려들과 구별하여 해당 장소의 마지막 부분에 배정하였다. <소초과기>의 기준이나 저자가 활동한 시대별 구분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담연이나 지례의 앞에 배치되어야 하나 <소초>로서는 마지막이고, <주>, <논>의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또한 요나라 승려의 경우도 마지막에 배치하여 중국 저자와 구별하였는데, 연번 49-50의 思孝의 저술도 마지막에 배정하였다. 신라나 고려 승려의 저서를 중국의 그것과 대비하여 마지막에 두어 차별화한 것으로 고려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의친의 「교장총록」의 법화 및 천태 장소 분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친의 문집 등에서 언급한 경논 및 장소관과 관련하여 「교장총록」의 배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친의 경전의 이해는 疏鈔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가능한데, 「교장총록」의 법화 및 천태 장소의 배열은 疏鈔記科의 위계적 분류 - 著者시대순 배열 - 신라·遼의 章疏 별도 배열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국 관련 경전의 類門 안에서 상호관련성을 추구하면서 경전의 이해와 불도의 증득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인 방편문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천태종의 교관병수와 관련하여 「법화경」의 장소인 교문, 천태종의 장소인 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음은 특징적이다.

3.2 「新編諸宗教藏總錄」所載 天台宗 章疏

천태종의 開祖인 智者의 法系는 위로 慧文, 惠思인데, 慧文의 저서는 없고 惠思의 찬술서로는 「교장총록」에 「諸法無諍門」 2卷이 전한다. 이하 天台智者로부터는 傳法の 系譜를 제시하면서, 저자 아래에 저술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3.2.1 智顓의 저술

智顓은 중국 천태종의 개조이며 많은 저술이 진한다. 이 저술은 천태종의 기본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 대상도 「法華經」에 한정된 것이 아닌, 「維摩經」, 「觀無量壽經」, 「金光明經」, 「小阿彌陀經」, 「請觀音經」, 「梵網經」, 「金剛般若經」, 「仁王經」 등 다양하였다.⁴⁰⁾ 또한 관문에 해당하는 止觀類의 章疏도 「摩訶止觀」, 「六妙門禪法」 등 다수의 실천수행문의 장소를 저술하였으니 아래의 표와 같다. 한편 「교장총록」 권제3에 수록된 「略明開蒙初學坐禪止觀要門」은 「大正藏」에 수록된 「修習止觀坐禪法要」와 제목에 유사하다.⁴¹⁾ 「修習止觀坐禪法要」는 「童蒙止觀」 또는 「小止觀」으로 이칭되는데,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장총록」 권제3에 「小止觀」이 수록되어 있다. 위의 장소는 대교 등을 통하여 그 상관성은 보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智顓述	敎藏總錄卷第1	維摩經	疏二十八卷 玄論七卷 玄義六卷
智者說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觀音品義疏二卷 觀音品玄義二卷 文句十卷 玄義十卷
智者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三昧儀一卷
天台說	敎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疏一卷 十疑論一卷
		金光明經	文句三卷 玄義一卷
		小阿彌陀經	義記一卷
		請觀音經	疏一卷
	敎藏總錄卷第2	梵網經	義記二卷

40) 「교장총록」에 수록된 「법화경」 및 천태종 장소는 <표 1>, <표 2> 이외에 중국의 천태종에서 소의한 경전은 다수이다. 본고에서는 일부를 제시하였다.

41) 「修習止觀坐禪法要」, 「大正藏」 권46. 「교장총록」과 제목이 다르지만 大正藏본에 제목의 이칭 부기됨.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天台說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觀心論一卷 小止觀一卷
天台述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覺義三昧一卷 略明開瞭初學坐禪止觀要門三卷(或一卷) 六妙門禪法一卷 摩訶止觀十卷 般若玄論一卷 方等行法一卷 法界次第三卷 四敎義四卷(或有十二卷本開合而已) 四念處四卷 禪門口決一卷 禪波羅蜜十卷 圓敎六即一卷
(天台說)	敎藏總錄卷第1	金剛般若經	義疏一卷
		仁王經	疏一卷

3.2.2 灌頂의 저술

灌頂(561-632)은 25세부터 智者의 강연에 참석하였으며, 智者 입적 뒤 聽聞한 바를 결집했다. 이 가운데 「大涅槃經」은 南本을 취하여 주석하였다. 「八敎大意」는 灌頂의 찬술이 아닌 형계의 문인 明曠의 찬술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는 「교장 총록」의 오류를 「佛祖統紀」에서 답습한 것으로 보았다.⁴²⁾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灌頂述	敎藏總錄卷第1	大涅槃經	玄義二卷
		法華經	別傳一卷
灌頂述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國清百錄五卷 疏三卷 八敎大意一卷
灌頂述 湛然再治	敎藏總錄卷第1	大涅槃經	疏十八卷

42) 上杉文秀, 「日本天台史」(日本 東京: 國書刊行會, 1972), 768에서 繼天의 「八敎大意便蒙」에 「八敎大意」의 저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3.2.3 湛然의 저술: 13부

湛然(711-782)은 천태의 주석을 가지고 教의 흥선을 도모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疏記이다. 「釋籤」, 「記」, 「弘決」은 3대부의 주석이다. 「弘決」은 「摩訶止觀輔行傳弘決」이며 이를 줄여 「輔行」 또는 「弘決」이라고도 한다. 「搜要記」는 「摩訶止觀」의 요점을 搜出한 것이다. 「本跡十妙不二門」은 「十不二門」이며, 원래는 「釋籤」 第六卷에 이어진 것이다.⁴³⁾ 현의는 教相이 주가 되고, 「釋籤」에서 이 「십불이문」은 觀門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湛然述	教藏總錄卷第1	大涅槃經	金剛錍一卷
		法華經	科六卷 文句科四卷 文句記十卷 本跡十妙不二門一卷 釋籤十卷
	教藏總錄卷第3	維摩經	廣疏記六卷 略疏十卷
		諸宗/集傳/雜	(摩訶止觀)科六卷 (摩訶止觀)搜要記十卷 止觀大意一卷 止觀義例一卷 弘決十五卷(或十一卷或三十卷開合而已)

3.2.4 荊溪 門下의 저술

「佛祖統紀」荊溪世家에는 普門禪師下 14명이 수록되어 있다. 南岳普門禪師, 龍興元皓禪師, 華頂行滿禪師, 天台智度禪師, 建安法顯禪師, 翰林學士梁肅 등이다. 이들의 저술을 「교장총록」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43) 宗昱, 「註法華本跡十不二門」, 「卍續藏」 第56冊. 咸平元年是 998년.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梁肅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智者碑文一卷 荊溪碑文一卷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刪定止觀六卷
明曠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大意一卷

이외 行滿의 『四分律開宗記義鏡鈔』 20권이 『敎藏總錄卷』 권제2에 수록되어 있다. 현전의 『開宗記義鏡鈔』는 권제4 上·下의 零本이 유일본이고, 조선시대 刊經都監에서 復刊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광사 舊藏本이었지만 소재 미상이다. 『高麗續藏雕造攷』 및 『順天松廣寺藏高麗板天順板佛典』에 권수와 권말에 해당하는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開四分律宗記義鏡』은 『智證大師請來目錄』 즉, 『日本國上都比叡山延曆寺比丘圓珍入唐求法總目錄』에 10卷이며 譚山の 찬술로 수록되어 있다.⁴⁴⁾

行滿이 거론된 저술로 『(俱舍論)序鈔』 1권이 있고, 그 찬자에 대하여는 ‘亡名或云行滿述待勘’이 『교장총록』 권제3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行滿에 의해 찬술된 『六卽義』가 있고, 『교장총록』에는 天台 찬술의 『圓教六卽』 1권이 있다.⁴⁵⁾

형계의 문하에 道濤가 있고, 그 法嗣에 唐의 道暹이 찬술한 『法華文句輔正記』 총 10권이 金澤文庫에 所藏되어 있지만 『교장총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3.2.5 義寂 및 門下의 저술

義寂(919~987)은 『止觀義例』, 『法華十鈔』 등의 찬술이 있으며, 門下에는 義通, 諦觀, 澄叅, 宗昱 등 名師를 배출하였다. 그의 기록에는 고려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교장총록』에 수록된 그의 저술은 없다. 宗昱의 찬술서의 일부 내용은 산외파와 유사한 점이 있어 뒤에 사명파에서 제외되었고, 그 때문에 고려 출신 의통이 의적의 뒤를 이었다. 義寂 문하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44) 宋代의 行滿(968-975)과는 다르다.

45) 『六卽義』, 『卍續藏』 56에서 ‘天台僧 行滿 於國中述’이라고 하였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諦觀述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四教儀一卷
澄惑述	教藏總錄卷第1	般若心經	顯宗記二卷
澄惑注	教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注十疑論一卷
宗昱述	教藏總錄卷第1	法華經	注法華本迹不二門一卷

3.2.6 志因系의 저술(山外派)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智因述	教藏總錄卷第1	法華經	綱要略釋一卷
	教藏總錄卷第3	百法論	綱要略釋一卷
洪敏述	教藏總錄卷第1	首楞嚴經	資中疏證真鈔六卷
智圓述	教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刊正記二卷 科一卷
		大寶積經	普入不思議法門經疏一卷(大經第十會)
		大涅槃經	科二卷 科二十卷 科一卷 發源機要二卷 三德指歸二十卷 顯性錄四卷
		文殊說般若經	疏二卷
		般若心經	疏一卷 詒謀鈔一卷
		法華經	無量義經疏二卷
		四十二章經	正義一卷 注一卷
		小阿彌陀經	西資鈔一卷 科一卷 疏一卷
		首楞嚴經	谷響鈔五卷 科六卷 疏十卷 顯贊鈔記十四卷
		孟蘭盆經	禮讚文一卷 摭華鈔二卷 科一卷
		維摩經	垂裕記十卷 科六卷
			教藏總錄卷第2
繼齊述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指濫一卷

「교장총록」에는 ‘志因’의 저술은 없고 ‘智因’의 저술이 2부 입록되었다. 智因은 禪宗의 자료에서 法名이 산견되므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전 저술은 없다. 산외파는 志因 - 晤恩 - 洪敏 - 源淸 - 智圓(孤山法師) - 慶昭 - 繼齊, 咸潤으로 상전되었으며, 「교장총록」에 입록된 저술은 위와 같다.

3.2.7 寶運義通 및 門下の 저술

義通의 저술로는 「觀經疏記」, 「光明玄贊釋」, 「光明句備急疏」 등이 史傳에 보이지만 현전하지 않는다. 문하에는 知禮와 遵式 등이 있으며 그 저술은 다음과 같다. 나계목적의 문하에 의통과 종욱이 있었고, 의통이 적사가 된 이후에는 준식과 지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의통은 정토와 염불을 중시하였으며, 준식도 그의 저술 가운데 다수의 정토 관련서가 있다. 준식의 「往生淨土懺願儀」는 「小阿彌陀懺儀」에 대해서 「大阿彌陀懺儀」라고 하지만, 의천의 「교장총록」에는 「小阿彌陀經」의 항목에 두었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遵式述	教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往生淨土決疑行願二法門一卷
		金光明經	懺法補助儀一卷
		大華嚴經	摭要鈔四卷
		小阿彌陀經	往生淨土懺願儀一卷
		請觀音經	懺儀一卷

3.2.8 四明知禮의 저술

知禮(960~1028)의 저술로는 「金光明經文句記」·「解謗書」·「大悲懺儀」·「修懺要旨」·「光明懺儀」·「觀無量壽佛經融心解」·「觀音別行玄義記」·「觀音別行疏記」·「釋請觀音疏中消伏三用」·「問目二十七條答釋」·「二十問」·「別理隨緣二十問」·「義例境觀」 등이 있다. 지례의 문도 가운데 尙賢·本如·

梵臻 等 30여 명이 있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智禮述	教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妙宗鈔三卷 科一卷
		金光明經	釋難扶宗記一卷 十義書五卷 玄義科一卷 玄義拾遺記三卷
		法華經	十不二門指要鈔二卷 科一卷 義疏紀二卷 科一卷
		請觀音經	釋消伏三用一卷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別理隨緣二十問一卷(融會章附)
知禮述	教藏總錄卷第1	金光明經	文句科二卷 文句記六卷

3.2.9 慈雲遵式系の 저술

遵式の 嗣法弟子로는 妙果文昌·明智祖韶·法喜清鑑 등이 있고, 元淨(1011~1092)은 慈雲 입적 뒤에 明智韶에게 배웠다. 고려 의천은 입송구법시 항주 용정사에서 元淨과 토론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천태종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宋 元豐(1078~1085) 년간에 紫衣와 辨才大師 법호를 받았으며, 龍井 聖壽院으로 퇴거한 뒤 元祐 6년 9월에 入寂하였다. 「교장총록」에는 다음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高山寺藏 安元二年 「교장총록」 寫本에는 「圓事理說」로 되어있다. 한편, 송승 靈鑑의 전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慈雲遵式の 제자로 보이며 다수의 저술이 전한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元淨述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圓事理該一卷 科一卷
靈鑑述	敎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釋西方定散二善一卷
		金光明經	經王解一卷
		般若心經	疏一卷 環中鈔二卷 科一卷
		消災經	記二卷 科一卷 疏一卷
	孟蘭盆經	方法一卷 補闕鈔二卷 科一卷 疏一卷 禮讚文一卷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右繞行道破邪現正儀一卷

3.2.10 四明知禮 門下の 저술

知禮의 門徒 가운데 尙賢·本如·梵臻, 仁岳이 주목되며 그 저술은 다음과 같다. 尙賢·本如·梵臻은 지례 문하의 정통 3가이다. 저술은 다음과 같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尙賢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答三千書一卷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經體章一卷
梵臻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十不二門總別指歸一卷
惠才述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圓敎解行集要一卷

위의 惠才는 廣慈慧才로 추정되며 「圓敎解行集要」는 현전하지 않는다. 다음의 仁岳은 「능엄경」과 「아미타경」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이로 보아 선종과 정도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慈梵은 雪川慈梵으로 吳興子昉, 錢唐可久, 錢唐惠勤 등과 함께 인악의 法嗣이다. 특히 可久는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 서신을 교류한 자료가 있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仁岳述	教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十諫書一卷
		金剛般若經	發輪鈔三卷 科一卷 疏二卷
		大涅槃經	禮讚文一卷
		法華經	論三千書一卷 十不二門文心解一卷 科一卷
		四十二章經	通源記二卷 科一卷
		小阿彌陀經	新疏二卷 新疏指歸二卷 科一卷
		首楞嚴經	禮誦儀一卷 文句二卷 說題科一卷 說題一卷 集解十卷 熏聞記五卷
	教藏總錄卷第2	(律_기타)	施食須知一卷
		佛遺教經	助宣記二卷
		四分律	南山讀日禮讚文一卷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科一卷	
		復右旋行道儀一卷 義學雜編六卷	
慈梵述	教藏總錄卷第1	法華經	讀十不二門新注一卷
		首楞嚴經	說題通要二卷

3.2.11 廣智尙賢系の 저술

尙賢系로는 神智鑑文, 扶宗繼忠, 超果惟湛, 四明如吉, 淨社全教, 括蒼義詢, 四明蘊恭, 金文冲霄, 法昌本誠 등이 있다. 이들의 저술을 「교장총록」에서 확인하면 다음 표와 같다.

從義는 뒤에 後山外로 분류되며 「法華經三大部補注」를 찬술하였는데, 「교장총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고려 高宗 32年(1245)에 分司大藏都監에서 조조한 이 「法華經三大部補注」는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에 대한 주석이다.⁴⁶⁾

46) 남권희(2002), 666-667.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繼忠錄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類集口義十三卷
繼忠述	敎藏總錄卷第1	觀無量壽經	解誘書三卷
		金光明經	科一卷
如吉編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天台文類十卷
從義述	敎藏總錄卷第3	四教儀	科一卷
		四教儀	集解三卷

3.2.12 神照本如系の 저술

本如(981~1050)의 저술은 「仁王懺儀」·「普賢行法經義疏」 등이 있고, 嗣法弟子는 神悟處謙·法眞處咸·楡菴有嚴·能仁法寶·承天懷雅·天台寶織·錢唐義全 등이 있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處謙述	敎藏總錄卷第1	法華經	十不二門顯妙一卷

3.2.13 南屏梵臻系の 저술

梵臻의 저서는 「十不二門總別指歸」가 있지만 현전하지 않고, 제자에 從諫 등이 있다. 의천은 입송구법시 從諫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고, 천태교학을 교류하였다. 저술은 「교장총록」 권제1 「法華經」 항목에 「議方便品題」 1권이 전한다.

3.2.14 廣慈慧才(998-1083) 門下の 저술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戒珠集	敎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往生淨土傳三卷

戒珠는 慧才의 계보에 해당하지만 傳記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정토종과의

관련성이 짐작된다. 계주의 「別傳心法儀」의 跋文은 의천이 지었고, 그 내용이 「釋門正統」에 기록되었다.

3.2.15 기타

「法華經傳記」는 「大正藏」 제51책에 「法華傳記」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원저본은 일본의 慶長 5年(1600) 간행의 大谷大學藏本이며, 甲本은 東大寺藏의 古寫本이다. 甲本에 ‘僧祥撰集’의 四字가 있어 祥公은 慧詳으로 추정된다.

著者	收錄卷	經名	章疏名 및 卷數
慧詳述	教藏總錄卷第1	法華經	傳十卷
飛錫述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念佛三昧寶王論三卷
贊寧述	教藏總錄卷第2	四分律	律鈔音義指歸三卷
贊寧撰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大宋高僧傳三十卷 僧史略三卷
智親編	教藏總錄卷第3	諸宗/集傳/雜	天台法數十卷

한편 唐代 慧詳의 「弘贊法華傳」은 「大正藏」에 수록되어 있으며, 「弘贊法華傳」 총 10권, 惠詳撰이라 하여, 찬자명이 다르지만 동일인이다.⁴⁷⁾ 저본은 保安元年(1120) 寫本으로 東大寺藏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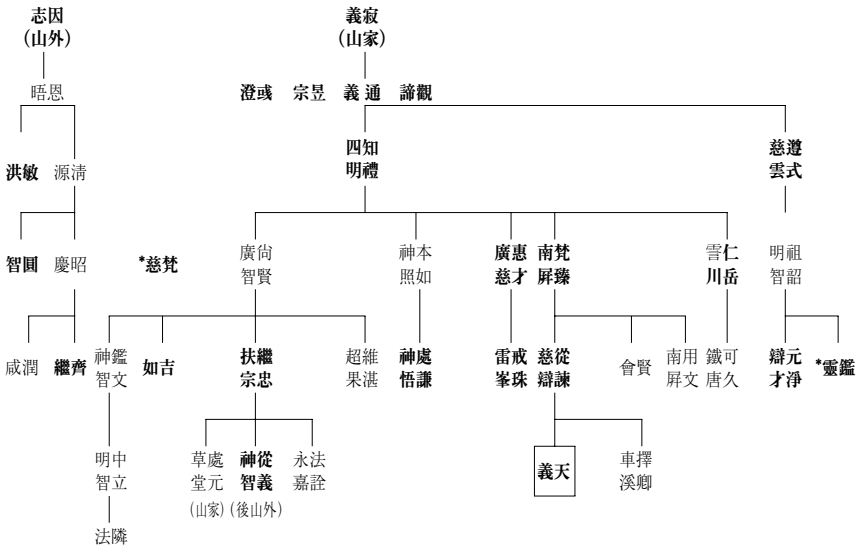
「法華經傳記」는 部類增減第一, 隱顯時異第二, 傳譯年代第三, 支派別行第四, 論釋不同第五, 諸師序集第六, 講解感應第七, 諷誦勝利第八, 轉讀減罪第九, 書寫救苦第十, 聽聞利益第十一, 依正供養第十二로 구성되어 있다. 「弘贊法華傳」은 圖像第一, 翻譯第二, 講解第三, 修觀第四, 遺身第五, 誦持, 轉讀第七, 書寫第八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의 간본을 大宰府勸 俊源이 서사하였고, 송나라 상인 蘇景이 고려에서 구하여 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覺樹가 서사하였다.⁴⁸⁾ 위의

47)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55-56. 「弘贊法華傳」을 소개하였다. 한편 「교장총록」에는 <傳十卷>으로 되어있고, 金澤文庫에는 鎌倉時代 사본으로 「法華經傳」이 전한다. 東大寺藏本과 對校가 필요하다.

兩書を 비교하면 동일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法華經傳記』 쪽이 내용에 있어 보다 풍부하다. 이에 대한 상세 비교가 필요하다.

이상 위에서 제시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天台宗 諸師가 찬술한 章疏 1)번부터 15)번까지에 대하여, 송 천태종 章疏 저술자의 전법 관계와 함께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天台宗 章疏 著者の 傳法 系譜⁴⁹⁾



48) 『弘贊法華傳』 권10, 『大正藏』 51 奧書.

“弘贊法華傳者 始自東晉 終乎李唐 凡學法花 得其靈應者 備載於此 斯可謂神贊一大事之因緣 使其不墜于地者歟 然今海東 唯得草本 年祀逾遠 筆誤頗多 鑽仰之徒 病其訛升 余雖不敏 讎校是非 欲廣流通 因以雕板 庶幾披閱之士 開示悟入 佛之知見者也 時天慶五年歲在乙未李春月十七日 於內席釋院明慶殿記 海東高麗國義龍山弘化寺住持究理智韶 淨光處中吼石法印僧統賜紫沙門德緣勘校 文林郎司宰承同 正李 唐翼書 大日本國 保安元年七月八日 於大宰府勸俊源法師書寫畢 宋人蘇景 自高麗國奉渡聖教之中 有此法華傳 仍爲留兩本所令書寫也 半僧覺樹記之。”

49) 박용진, 『義天 -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222쪽과 『佛祖統紀』를 참고하여 作圖.

天台智顓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은 대개의 저술이 灌頂에 의해 정리되었고 제6조 荊溪湛然에 의해 발전하였다. 담연과 義寂을 이어 義通의 문하가 정통을 계승하며 발전하는데, 의통 이후에는 지례계, 준식계, 지인계로 3대분 할 수 있다.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된 義通 이후 3대 계파별 저술을 살펴보면, 지례계는 10명 45부, 준식계는 준식, 元淨, 靈鑑 등 3명 17부, 志因系가 孤山智圓 등 4명 29부이다. 이 가운데 지례 문하의 후산외파 仁岳의 저술 21부를 제외하면 지례계의 저술은 24부이다. 산외파로 분류되는 지인계의 경우 고산지원의 저술이 25부이다.

의천은 「교장총록」에 천태지자 이후 송대의 많은 천태교학서를 수록하였는데 모두 32명 158부에 이른다. 위의 <표 4> 天台宗 章疏 著者の 傳法 系譜에 따르면, 의천은 후대의 분류기준으로는 산가파의 정통을 계승하였고, 이들의 저술을 주로 「교장총록」에 수록하였다. 의천이 산외파, 후산외파로 분류되는 자료를 수록하였다고 하여 의천이 산외파의 사상에 경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산가, 산외, 후산외파 등은 志磐의 「佛祖統紀」 단계의 구분이다. 따라서 실제 의천은 산가와 산외의 계파 인식이 충분치 않았으며, 관련 자료를 가능한 수록하였다.

천태종의 개창은 智顓로부터 비롯하는데, 그가 활용한 경전은 「法華經」에 한정된 것이 아닌, 「維摩經」, 「觀無量壽經」, 「金光明經」, 「小阿彌陀經」, 「請觀音經」, 「梵網經」, 「金剛般若經」, 「仁王經」 등 다양하였다. 또한 관문에 해당하는 止觀類의 「摩訶止觀」, 「六妙門禪法」 등 章疏도 저술하였다. 후대 천태종의 諸師는 智顓가 찬술 대상으로 한 경전 이외에 智顓 등 諸祖師의 찬술에 대해 주석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후대에는 시기적으로 선종과 정토종 등과 교류하는 가운데 해당 종파와 관련된 경전이나 장소에 대해 주석을 하는 경향이 보인다.

4. 맺음말

본고는 義天의 天台宗 開創과 그 당시에 활용되었을 所依 章疏를 『대각국사문집』, 碑文, 『교장총록』 등 제 사료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의천은 일찍이 天台敎學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며 천태종 개창 시도는 선종 대에 시작되었다. 의천은 숙종의 즉위 이후 숙종 1년(1096) 개경의 흥왕사로 돌아와 주지가 되어 강학하였다. 이듬해 숙종 2년(1097) 5월에는 흥왕사 주지를 겸하면서 국청사가 완공되자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숙종 5년(1100)에는 국청사에서 천태 교학을 강하고, 숙종 6년(1101) 2월에는 천태종 승과 대선을 실시해서 40명을 선발하는 등 천태종세를 진작하였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함께 활용된 소의 경전과 장소를 살펴보면, 천태종의 대표적 소의경전은 『妙法蓮華經』이지만, 『열반경』, 『반야경』 등 특정의 경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천태종 諸 祖師가 찬술한 章疏가 활용되었다. 의천은 1097년 5월 국청사 주지가 되어 天台敎學을 선양하였는데, 천태사상의 기본서인 『法華玄義』 등 천태종 관련 講經을 국청사에서 設行하였다. 이로 보아 『法華玄義』에 대한 교학적 이해를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천은 三角山 향림사에서 『天台十不二門』을 강설하였다. 『十不二門』은 天台宗의 十種 不二法門으로 觀心의 大綱을 제시한 것이다. 『十不二門』의 강경을 통하여 觀門의 수행을 강조하면서, 敎觀兼修의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의천의 문집 등에서 언급한 경논 및 장소관과 관련하여 『교장총록』의 배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의천의 경전에 대한 이해는 疏鈔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가능한데, 『교장총록』의 법화 및 천태 장소의 배열은 疏鈔記科의 위계적 분류 - 著者 시대순 배열 - 신라·고려·遼의 章疏 별도 배열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국 관련 경전의 類門 안에서 상호관련성을 추구하면서 경전의 이해와 불도의 증득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천태종의 고관병수와 관련하여 『법화경』을 비롯한 諸經 章疏類를 敎門, 論部의 <諸宗撰述>에 수록된 止觀類 章疏를 觀門으로 유별할 수 있다.

끝으로 「교장총록」에 수록된 천태종 장소에 대하여 천태종의 개조인 지의로부터 宋初에 이르는 법계를 정리하고, 그들의 저술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천태종 장소가 고려 의천의 천태종 개창 당시 모두 활용되지는 않았겠지만, 천태종의 종파성립의 所依 章疏의 기준이 되었을 법하다.

1090년에 성립된 의천의 「교장총록」에는 宋初 천태 제사의 저술을 수록하였다. 당시 활약한 송대 천태 제사의 학문 동향을 그들의 주석서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화경」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경전에 대해 주석서를 찬술하였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이러한 찬술이나 사상경향을 염두에 두면서 천태종의 所依 章疏로서 주목하였을 법하다. 고려시대 천태종사와 관련하여 천태종 소의 장소의 변천은 시대별로 보다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권10 宣宗9年 6月條.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권15, 「韓國佛教全書」 권4, 553.

義天. “上淨源法師書.” 「大覺國師文集」 권10, 「韓國佛教全書」 권4, 543.

金富軾.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579.

林存. “僊鳳寺大覺國師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332.

「止觀義例」, 「大正藏」 권46.

「佛祖統紀」 권10, 「大正藏」 권49.

「註法華本跡十不二門」, 「卍續藏」 권56.

「弘贊法華傳」 권10, 「大正藏」 권51 奧書. 47-48.

謙田茂雄 等. 「大藏經全解説大辭典」. 日本 東京: 雄山閣出版, 2001.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대학원. 1982.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박용진.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 編纂과 華嚴 및 天台章疏.” 『중앙사론』 22(2005. 12). 1-30.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上杉文秀. 『日本天台史』. 日本 東京: 國書刊行會, 1972.
- 임혜경.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 편찬과 그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蔡尙植. “고려시대 불교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 제5권. 서울: 한길사, 1993. 3-7.
- 최애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편성체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